

시론



박 남 기
광주교대 명예교수

퇴임하는 대학교수가 겪는 어려운 일 중의 하나는 오랜 세월 함께한 연구실의 책 및 자료들과 작별하는 것이다. 자료 선별을 위해 책꽂이에 배열된 100여 개의 연구 폴더를 하나 하나에 잠들어 있던 30여 년의 시간들이 먼지와 함께 피어오른다. 취임 첫해에 미리 써두었던 퇴임사, 한국교육이론을 새롭게 정립해 세계적인 학자가 되겠다는 포부 등등 기억이 새롭다. 손글씨 가득한 80년대와 90년대 초반의 원고들, 닥트 프린터로 뽑은 논문 초안들, 한자가 가득한 연구보고서를 보니 그간 변화가 한 눈에 들어온다. 강의와 연구, 외부 활동으로 바빠 지냈던 시간들, 기차 차창으로 스치던 무덤들을 보며, “저기에 누우면 영원히 쉬 터이니 살아있는 동안 원 없이 열심히 지내보자”며 스스로를 다독였던 순간도 떠오른다.

대학 도서관에서도 더는 퇴임 교수의 책을 받지 않는다. 그간 쳐다보지도 않았던 책과 자료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버리고 나면 필요한 경우가 생겨 머리에 이고 세월을 보낸다. 지난해에는 학회 요청으로 학회의 학문적 성과를 되돌아보는 논문을 쓰게 됐는데, 가지고 있던 오래된 자료들이 크게 도움이

저승에서 온 유품 정리사

됐다. 대학평가, 교수업적평가, 교육부평가, 교육청평가, 교원평가 연구 등 평가 관련 연구 기초자료와 평가수행 과정에서 축적해놓은 자료들이 눈에 띈다. 90년대 이후 평가를 통한 책무성 확보 시도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IMF 시절 갑자기 증가한 이혼가정 학생 연구 폴더에는 당시 진행했던 면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자료를 일일이 검토하며 선별해다가는 모두 싸 들고 가게 될 것 같다. 연구조교 하나 없는 교육대학에서 혼자 이렇게도 많은 연구와 일을 했다. 치위도 치위도 끝이 없다. 하나 하나가 소중한 자식 같다. 이층에 남겨진 자신의 유품을 스스로 정리할 특별휴가를 얻은 저승에서 온 유품 정리사가 왜 기차 없이 정리하기로 했다. 챙겨갈 것과 버릴 것을 선별하기 위한 기준을 세웠다.

100개가 넘는 연구 폴더는 모두 버리기로 했다. 컴퓨터가 등장한 이후에 교수 생활을 시작한 덕에 핵심 자료와 결과는 상당 부분 컴퓨터 파일로도 보관돼 있다. 책은 소장 가치나 중요도를 떠나 더 연구하고 싶은 분야, 꼭 다시 읽고 싶은 책 위주로 최소한으로 챙기기로 했다. 평생 공부만 해온 나의 흔적이 담긴 학창시절의 자료들도 일부는 가져가기로 했다.

파일로 존재하지 않는 자료도 아주 많다. 강의 첫 시간이면 학생들에게 설문지를 나눠 주고, 거기에 사진까지 붙여서 제출하게 했었다. 학생들의 얼굴 사진이 붙은 설문지들, 기말고사 시험 답안까지 연도별로 모아져 있

다. 사진과 이름을 보니 기억이 새롭다. 이미 중년을 넘어선 제자들을 떠올려 보다가 혼자서 그리움을 삼킨 채 모두와 작별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까지는 학생들이 손글씨 편지를 많이 보내왔었다. 그것들은 예전 때 모아두었기에 챙겨가기로 했다.

연구실 밖 복도가 책과 자료로 가득하다. 필자와 내 자료는 운이 좋은 편이다. 같은 분야 신입 교수에게 연락했더니 내놓은 것 중의 상당 부분을 챙겨갔다. 필자가 보관하고 싶었던 책과 자료도 원하던 더 가져가도록 했다. 이들은 죽음의 문턱에서 부활하여 20년 가까이 대학 연구실을 지키게 될 것이다. 연구실을 나서며 버려진 아이들을 훑어보다가 미련이 남은 책 몇 권을 챙겼다. 이리다가는 시간이 나겠다 싶어 더는 쳐다보지 않기로 했다.

축적하는 데에는 40여 년의 세월이 걸렸지만, 버리는 데에는 며칠이면 족하다. “그래도 고마운 줄 알아라. 네가 아닌 다른 유품 정리사였더라면 몇 시간 만에 모두 쓰레기통에 들어갔을 거야. 네게 소중한 것들도 타인의 눈에는 쓰레기일 뿐이지. 모두 버린 출가분한테만 취하지 말고, 그리 길지는 않을 특별 휴가 계획을 다시 만들어 보렴.”

아직 미완성인 한국교육이론 완성, 교육이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되도록 하기 위한 세상과의 왕성한 소통 등의 목표는 아직도 내 가슴을 뛰게 한다. 이를 위한 「그들이 말하지 않은 우리 교육 이야기」라는 책을 서둘러 마무리하자. 과거가 아닌 미래의 나와 대화하며, 남은 시간을 보람있게 채워가 보자.

社說

폭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일상 회복에 실질 도움돼야

행정안전부가 지난 3-4일 폭우가 집중된 전남 함평과 무안군 일대 현장을 점검했다. 이 지역은 이틀간 시간당 최대 140mm 이상이 쏟아졌으며, 특히 무안에는 289.6mm에 달하는 기록적인 강수량이 관측됐다. 아울러 행정부는 지난달 중순 큰 피해가 발생한 전국 16개 시·군·구와 20개 읍·면·동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광주에서는 북구와 광산구 어룡동·삼도동, 전남에서는 나주시, 함평군,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이 포함됐다. 중앙합동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준을 충족하는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한 것이다. 담양군은 앞서 지정된 바 있다. 조만간 이달 초 호우가 할린 곳들도 특별재난지역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자체와 주민들은 한 시름을 놓게 됐다고 하지만 또 언제 수마가 닥칠지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만큼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예상을 뛰어넘어 짧은 시간에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여름은

전례가 없다. 태풍보다 더 무서운 수준이다. 당장에 예산이 들더라도 상습침수구역을 중심으로 항구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난 대응의 속도와 방식, 예방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바꿔야 할 때다. 치수 인프라 사업을 더욱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정부도 현장에서 ‘과할 정도’로 임해달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현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로 유지하며, 기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누락되지 않도록 챙기고, 조속한 복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정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절박한 상황을 마주한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최선을 다하는 중이다. 이번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중앙합동조사 긴급지원반을 운영하고, 정확한 피해 산정과 정부 설득에 주력했으며, 응급 복구비를 투입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였다. 당연한 책무다. 앞으로도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실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ESS 정부 입찰 전량 확보 전남 에너지 대전환 성큼

2025년 제1차 에너지저장장치(ESS) 정부 입찰 전국 5개 시·도 공모에서 전남도가 전체 물량을 확보했다고 전해졌다. 아주 의미있는 결과라고 본다. ESS 시장 확대를 지속 권의 해 온 전남의 노력에 따라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ESS를 호남권에 우선해 두겠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반영했으며, 이번에 후속조치로 입찰이 이뤄졌다.

한전 전력망에 민간이 구축하는 ESS를 도입하는 입찰에서 전남은 영광, 무안, 진도, 고흥, 광양, 신안 등 6개 군 7개 사업이 선정됐다. 육지에선 최초의 사례다. 총량은 523MW, 사업비는 1355천억원 규모다. 배터리는 3천138MWh의 설비로 전남 가구당 일평균 전력소비량(7kWh)을 기준으로 약 45만 가구의 하루 사용량이다. 에너지저장장치는 전력계통 부족과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완화를 위해 전력을 담아놓는 일명 ‘전력 저수지’다. 재생에너지로 발생하는 잉여전력을 저장한 후 전력 수요가 높은 시간에 방전하는 설비를 말한다.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계속 요청해 정부 계획에 담겼으며, 입찰 물량 전부를 따낸 것은 지극히 바람직한 결과다. 무엇보다 국가 전력망 혁신 및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전남은 2030년까지 23GW 규모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AI 슈퍼클러스터와 RE100 산업단지를 연계한 서남권 50만 인구의 혁신성장벨트, 도민 참여형 연 1조원 규모의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은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5%에 머물러 전체 평균 35.4%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이웃 중국은 38.6%, 일본 22.0%, 미국은 22.7%다. 재생에너지 시장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전남도가 지역 내 ESS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동력을 확보했다. 현안 과제인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ESS 제조 및 건설 분야의 9천300여개 고용 창출이 예상되고 있다. 전남도의 당면 목표인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탄탄한 토대가 마련됐다.

히 바람직한 결과다. 무엇보다 국가 전력망 혁신 및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재차 확인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인 지역균형발전과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전남은 2030년까지 23GW 규모의 신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AI 슈퍼클러스터와 RE100 산업단지를 연계한 서남권 50만 인구의 혁신성장벨트, 도민 참여형 연 1조원 규모의 ‘에너지 기본소득’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은 가장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10.5%에 머물러 전체 평균 35.4%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이웃 중국은 38.6%, 일본 22.0%, 미국은 22.7%다. 재생에너지 시장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전남도가 지역 내 ESS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동력을 확보했다. 현안 과제인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ESS 제조 및 건설 분야의 9천300여개 고용 창출이 예상되고 있다. 전남도의 당면 목표인 에너지 기본소득을 실현하는 탄탄한 토대가 마련됐다.

문화난장



홍 인 화
광주북구여성행복원네트워크 위원장
前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회복은 언제나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재난 속에서도, 온기를 잃지 않고 곁을 지켜준 한 사람의 손길 이 다시 삶을 일으킵니다. 올해 7월과 8월 초, 광주 북구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는 그 진실을 다시금 일깨웠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4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며 도로는 잠기고, 집은 물에 잠겼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대피소로 향해야 했고, 일상의 터전은 흔적 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것은 단지 구조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젖은 사진첩, 일터의 흔적, 아이의 책가방처럼 작지만 소중한 삶의 조각들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 절망의 현장에서 가장 먼저 다가간 것은 ‘제도’도 아니었고 ‘공공’도 아니었습니다.

북구의 수해복구 현장에서

바로 또 다른 이웃,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물에 젖은 집안으로 들어가 맨손으로 진흙을 파내고, 손수 따뜻한 밥을 지어 나르며, 낯선 이의 눈물을 말없이 감싸 안던 손길들. 그들은 스스로도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회복의 길을 여는 첫 주체였습니다. 자녀를 챙기며 다른 가족을 돌보던 엄마들, 연로한 부모를 업고 다닌 딸들,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도 이웃을 감싸 안으려 했던 이주 여성들. 그들은 누구보다 앞서 공동체를 회복시킨 주인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주 여성들의 용기이자 따뜻한 연대의 증거입니다.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홀몸 어르신, 한 부모 가정, 이주민 가정, 1인 여성 가구 또한 결코 외면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손을 내밀었고, 고통을 나누며 연대의 울타리를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우리는 팬데믹과 재난을 거치며 ‘돌봄’이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돌봄은 무급이거나 저평가된 여성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 이상은 그 래선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회복의 뉴노멀’을 준비할

때입니다. 재난 대응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고, 골목 단위의 돌봄 공동체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법제화, 여성 참여 기반의 재난 대응 매뉴얼 마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코로나19 시기,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정책은 수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회복과 신뢰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새롭게 출범할 ‘성평등가족부’는 그러한 돌봄 정책의 연속성과 공공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해 나아가 합시다. 성평등은 단지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회복의 조건입니다.

돌봄은 개인의 현신이나, 모두를 위한 공공의 자선이며 미래를 여는 힘입니다.

비는 멈췄지만, 회복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계획보다도, 곁에 선 한 사람의 손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회복은 이미 함께 고통을 나누었던 그 마음에서부터 가능해집니다.

광주 북구의 여성들은 오늘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그 곁에 서 있습니다. 함께 울었던 그 마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미래는 지금, 바로 그 손끝에서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다카시 광장

그래 이렇게 사는 거야

김혜숙

모나고 못났다고 하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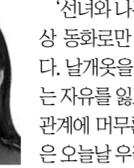
이렇게 서로 맞추어 주고 꺼안아 주며 산다면 예쁘게 잘 사는 것 아닌가요

※시작노트

청산도 상서마음 돌담길
뽀뽀뽀 크고 작은 못난 돌들이지만
풍파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서로 꺼안고 있는 모습에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아름다움을 보여 주었다

나를 뒤돌아본다. /광주다카시인협회 제공

독자투고



‘선녀와 나무꾼’은 더 이상 동화로운 읽히지 않는다. 날개옷을 빼앗긴 선녀는 자유를 잃고, 원치 않는 관계에 머무른다.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관계성 범죄’를 떠올리게 한다.

최근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으로 인한 관계성 범죄라는 용어가 급부상하고

‘선녀와 나무꾼’서 드러나는 관계성 범죄의 그림자

있다. 선녀와 나무꾼은 안면이 있고 신뢰로 형성된 관계라는 관계성 범죄의 특성을 충족하고 있다. 그 당시로 거슬러 가자면 불미스러운 일 정도로만 받아들여거나 나무꾼 자신도 피해자라는 왜곡된 인식에 빠져들 수 있다. 자신만의 잘못된 인식은 범죄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이미 맺어진 일정한 관계에서 반복되는 특성을 가진 범죄는

재발의 위험성과 강력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으며, 결국은 현실에서 비극적인 상황으로 끝난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존중’과 ‘동의’는 더 중요하다.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엄연히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다. 누군가의 날개옷이 더는 빼앗기지 않도록 사회의 인식과 제도가 달라져야 할 것이다.

(신민경·해남경찰서 수사과)

안전한 여름! 관심에서 시작된다

경우 내부공기 감소에 따른 질식과 제체온증에 의해 인명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 차량 내부에 라이터나 방향등 등 가스를 이용한 제품을 차내에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있어 자칫 고온에 의한 폭발로 이어지면서 화재로가

지변질 가능성이 크다. 안전 불감증은 소중한 목숨과 재산을 한순간에 빼앗아 갈 수 있다. 운전중에도 수시로 내부 공기를 환기시키는 등 절대로 안전수칙을 지키자. <김덕형·장성경찰서 경무계장>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 | | | | | | | |
|-----|----------|----------|----------|---------|----------|-----|----------|
| 편집부 | 650-2090 | 지역특집부 | 650-2060 | 광고문의 | 650-2099 | FAX | |
| 정치부 | 650-2030 | 사 진 부 | 650-2080 | 마케팅본부 | 650-2070 | 광고국 | 650-2016 |
| 경제부 | 650-2050 | 논 설 실 | 650-2006 | 경영지원국 | 650-2011 | 편집국 | 650-2017 |
| 사회부 | 650-2040 | T V 본 부 | 650-2009 | 사 업 본 부 | 650-2007 | 입부국 | 650-2019 |
| 문체부 | 650-2065 | 서울지사(02) | 786-9488 | 업 무 국 | 650-2020 | | |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 10(가)1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